

월간

매그레 수사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온라인 매거진

Maigret

뚜루

그들의 상상력이 기록된
웹진 <월간 매그레>

poirot

하이드

오픈키드

'매그레 반장'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자, 그리고
알리고자 노력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주

JERI

파자마 마니아

매그레
수사대



웹진 <월간 매그레>
2011년 7월호
매그레 수사대 발행
매그레 트위터 @Simenon_Maigret
매그레 페이스북 jules.maigret





SIMENON

Maigre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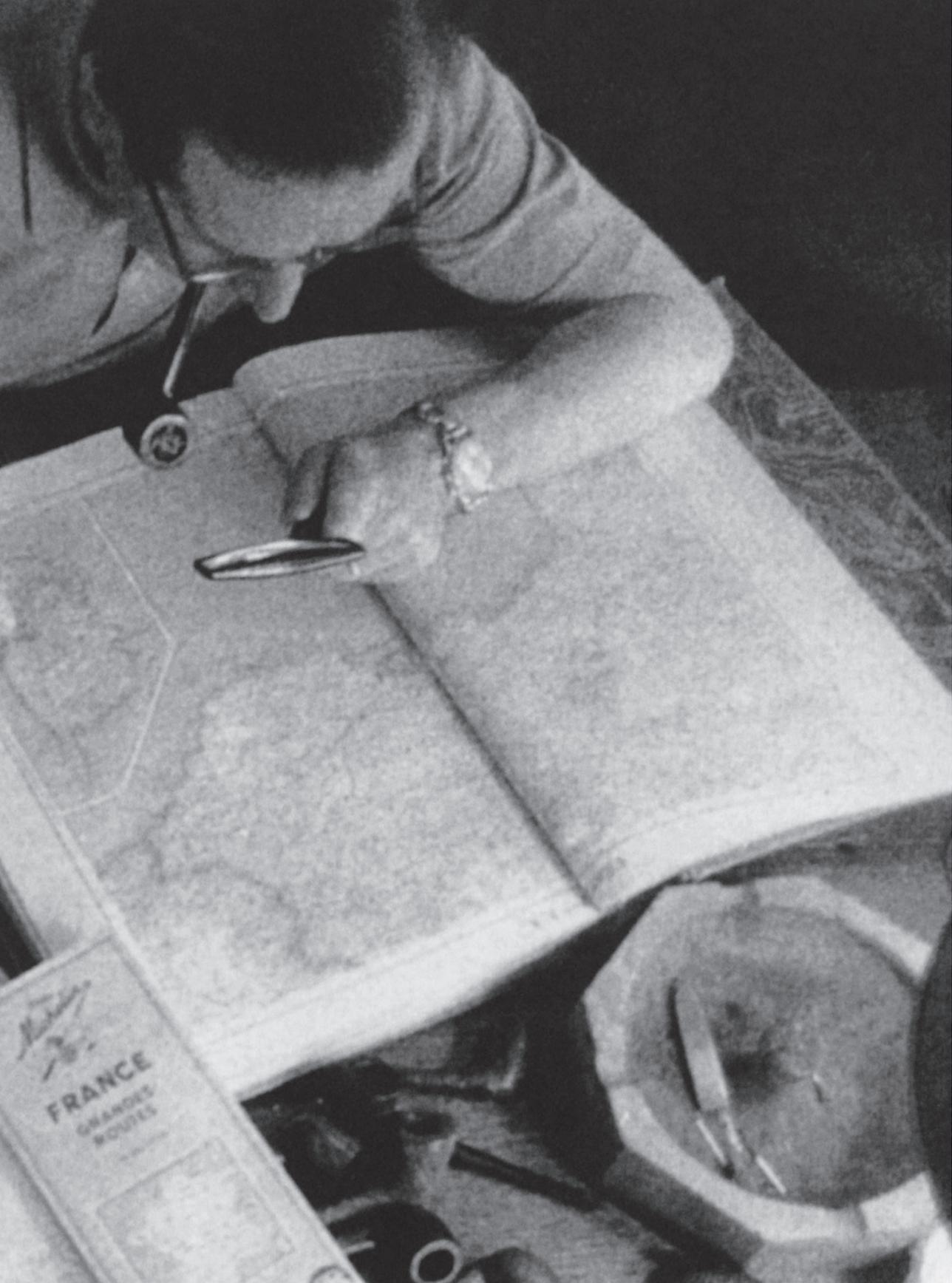
2011년 7월호 · 매그레 수사대

5 억 세 계 인 을
사 로 잡 은
추 리 문 학 의 신 대 륙
매 그 레 시 리 즈 를
읽 는 다

CONTENTS

prologue :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매그레 시리즈	7
조르주 심농 출간의 역사 _ 듀나	11
뚜루의 밑줄 그리기1_매그레 반장, 수상한 인간들을 쫓다	20
매그레 OST _ 오픈 키드	23
매그레를 따라가다 모네를 만나다 _ 영주	29
뚜루의 밑줄 그리기2_매그레 반장, 불안한 눈길을 쫓다	36
매그레, 표지를 말하다 _ 하이드	39
매그레와 담배 _ 라지모도	47
매그레와 수상한 퍼즐 1 _ 아잇	54
여자, 수치스러운 매독알이ng _ 파자마 마니아	56
심농과 세이초의 가상 대담 _ Poirot	59
epilogue : 월간 매그레 7월호에 부쳐	74

웹진 매그레 2011년 7월호
발행처 주식회사 열린책들
편집제1기 매그레 수사대



prologue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매그레 시리즈



셜록 홈스, 아르센 뤼팽, 필립 말로…… 그리고 쥘 매그레. 두툽한 외투를 걸치고 파이프 담배를 문 채 씹 없이 맥주를 마시는 거구의 사나이, 추리 소설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주인공 중 하나인 매그레 반장. 여느 추리 소설의 주인공과 다르게 단순히 범인을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면에 숨은 진실과 그에 얽힌 인물들의 심리와 욕망을 파헤치며, 때로는 준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범인을 대하는 매그레 반장의 인간적인 매력에는 당신도 빠져들 것이다.

매그레의 아버지, 조르주 심농

2011년은 최초의 매그레 장편이 1931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지 꼭 80년이 되는 해이다.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쓰인 추리 소설을 2011년의 한국에 사는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농이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마어마하다. 알베르 카뮈나 존

반빌과 같이 그의 직접적 영향을 고백한 작가는 물론이고 지드, 헤밍웨이, 엘리엇 같은 거장들, 마르케스, 세풀베다, 르카레 등과 같이 현재 세계 문학계의 거목으로 꼽히는 작가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심농의 작품에 찬사를 보냈으며, 이는 그의 작품이 후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방증한다. 누군가는 그에게서 체호프를 보고 누군가는 발자크와 도스토옙스키, 디킨스를, 누군가는 에드거 앨런 포를 본다. 장르 문학에 대한 평가에 인색한 프랑스 문학계가 그의 작품들을 <문학>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의 작품세계가 단순히 범죄와 그 해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범죄 아래에 깔려 있는 인간의 삶을 다루기 때문이다. 범죄의 심리를 파고드는 극도로 섬세한 심리 묘사와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의 농밀한 분위기 서술, 짧고 단순하면서도 긴장감이 담긴 팽팽한 문체는 <인간의 삶>이 지닌 비극성을 그려 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는 매그레 반장

심농의 작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매그레 시리즈. 장편 75편, 단편 28편으로 총 100편이 넘는 이 시리즈는 15편 이상의 극장 영화와 300편 이상의 TV드라마로 만들어졌으며, 드라마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재창조되고 있다. 단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100편의 작품을 쓴다는 것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지만, 그 작품들이 두루 인기를 얻는다는 것도 놀랍다. 시대가 흘러감

에 따라 매년 새로운 TV 영화로 제작된다는 것 역시 그만큼 일정 부분 시청률이 확보되기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매그레를 읽는 것도 모자라 극장과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추리 소설의 형식을 띠면서도 범죄라는 외피 속에 감추어진 사회적 약자의 울분에 공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심농이 관심을 가진 것은 언제나 세상의 끝, 갈 데까지 가고 만 사람들, 궁지에 몰린 사람들, 뒤쳐진 사람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살아 보겠노라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는 시간과 공간이 바뀐 2011년 대한민국에 사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他人의 목

시므농 / 閔憲植譯

ID • 듀나

조르주 심농 출간의 역사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려 하는 책들은 1970~1980년대에 나온 조르주 심농의 소설들이다. 그렇게 특별한 책들은 아니다. 하지만 매그레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들을 다시 한번 들춰 보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할 작품은 『황색의 개』다. 아마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 가장 자주 번역된 매그레 소설이 아닌가 싶다. 최고 걸작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가장 대중적인 만족도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설의 오리지널 동서 추리문고 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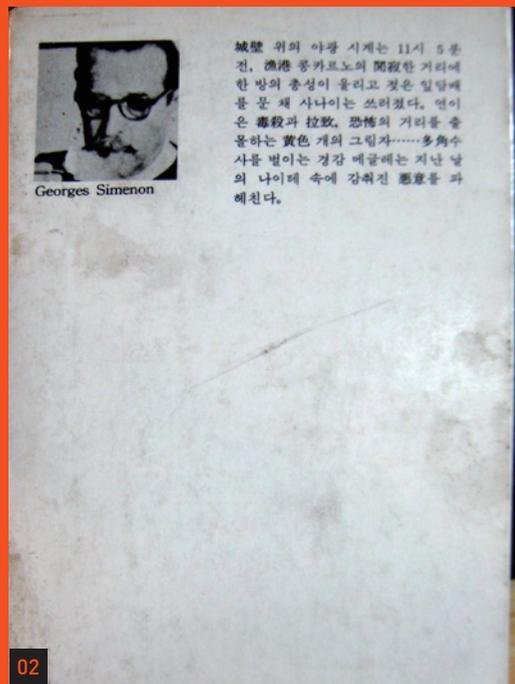
첫 페이지를 열린책들 버전 『누런 개』와 비교해 보시는 게 어떤지?

표기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매그레도, 메그레도 아닌 메글레란다. 이게 동서 추리문고의 괴상한 습관이였다. 멀쩡한 R를 L 발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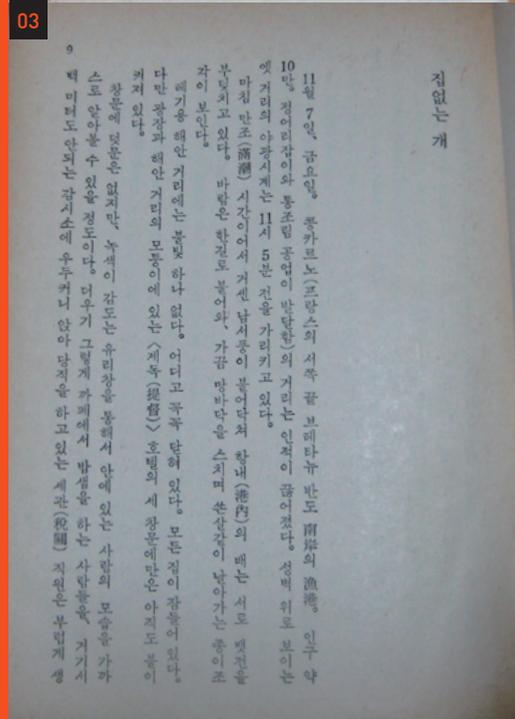


01

01, 02, 03 동서 추리문고에서 출간된 『황색의 개』의 표지, 작가 소개, 본문.



02
03



로 고쳐 쓰는 거다. 이걸 일반적인 일본어 중역 소설 표기와 반대인데, 중역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감추려다 이 꼴이 난 게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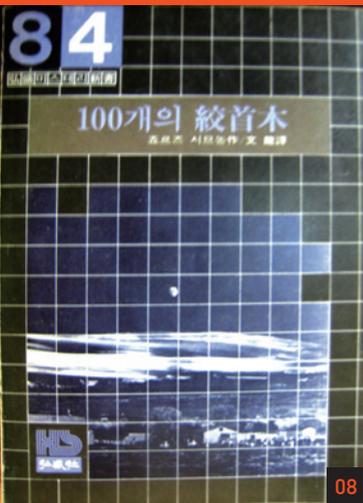
『황색의 개』는 새로 나온 동서추리문고의 『사나이의 목』 뒤에 수록되었는데, 그러는 동안 『황색의 개』 뒤에 수록됐던 단편 두 편이 빠졌다.

첫 번째 작품은 「세 개의 램브란트」라는 조제프 르보르뉴 단편이다. 조제프 르보르뉴는 조르주 심농이 만들어 낸 안락의자 탐정으로 「세 개의 램브란트」는 해문출판사에서 나온 조제프 르보르뉴 단편집 『13의 비밀』에도 수록되어 있다. 심농이 무슨 안락의자 탐정이냐고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이 작품집의 수준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도 「세 개의 램브란트」는 그중 매력적인 작품이니 나중에라도 찾아서 읽어 보시길.

두 번째 작품은 「살인자」라는 조금 긴 중편 길이의 작품으로, 매그레가 폴란드인들로 구성된 전문 범죄단의 일당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여전히 심농식 심리 묘사와 배경 묘사가 두드러지지만 속도가 빠르고 미국 하드보일드 소설을 닮은 경쾌함이 있다. 한번 도입부를 읽어 보시라.

이 작품은 삼중당 추리문고에서 〈황견〉이라는 제목으로도 번역되었다. 그 책도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 「황견」 뒤에 「매그레의 파이프」라는 단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타인의 목』으로 가볼까? 새 동서 추리문고에서는 〈사나이의 목〉으로 제목이 바뀐 책이다. 책 뒤에는 매그레라고 나와 있지만 본문엔 여전히 메글레다. 클로스비라고 표기된 인물의 진짜 이름도 유명한 가수처럼



가능성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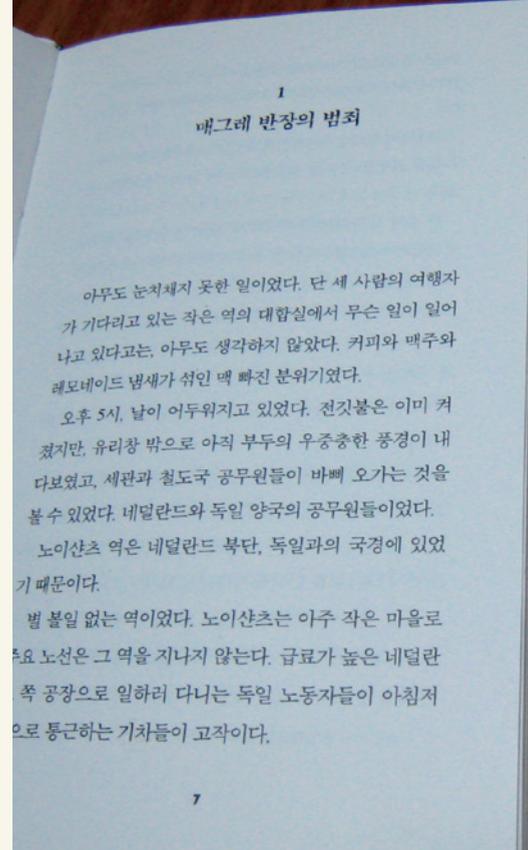
이미 첫 달에 번역된 『생폴리앵에 지다』의 흥성 사판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 없다. 한번 첫 페이지의 번역을 비교해 볼까? 이 사진을 찍는 동안 처음 두 페이지가 뜯겨져 나갔다는 걸 알아두시길. 이럴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책들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진다.

가끔 문단 나누기나 문장 부호의 차이가 보인다.

흥성사의 마지막 매그레 책은 『제1호 수문』. 이 작품도 올해 안에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에 언급되었던 『13의 비밀』 뒤에 수록되었으니 귀찮으면 그것을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박영사에서 나온 『세계추리명작선』에도 매그레 단편이 하나 수록되어 있다. 제목은 <매그레 경감의 추리>. 도입부는 다음과 같다.

베를린에서 출발한 열차 안에서 살해된 시체가 발견되고 이 사건을 맡은 조카를 돕기 위해 매그레가 나선다는 이야기다. 보통 매그레가 천재형 탐정은 아니라고 하던데, 단편에서는 사정이 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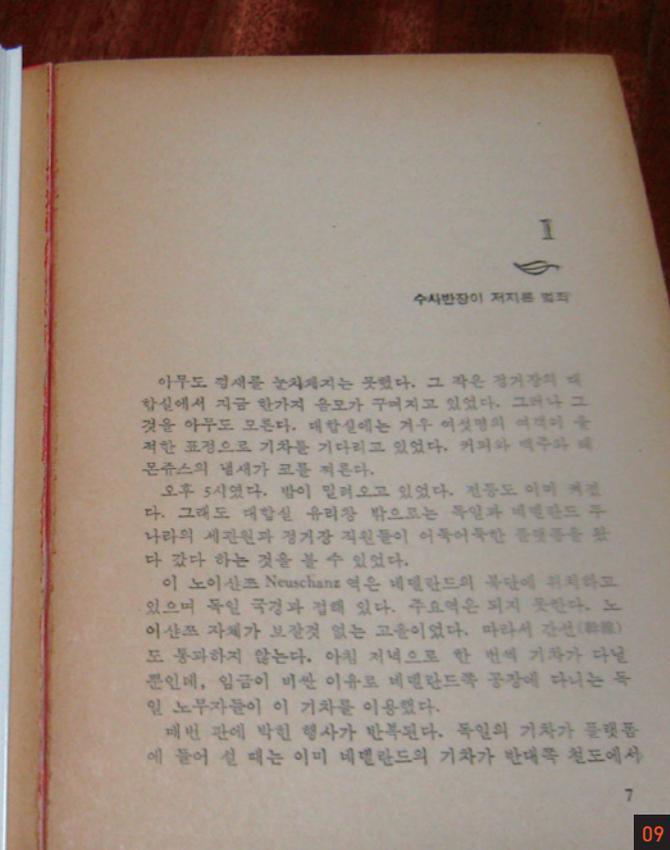


1
매그레 반장의 범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일이었다. 단 세 사람의 여행자가 기다리고 있는 작은 역의 대합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커피와 맥주와 레도네이드 냄새가 섞인 맥 빠진 분위기였다.

오후 5시,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천빛불은 이미 꺼졌지만, 유리창 밖으로 아직 부두의 우중충한 풍경이 내다보였고, 세관과 철도국 공무원들이 바빠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독일 양국의 공무원들이었다. 노이산츠 역은 네덜란드 북단, 독일과의 국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별 볼일 없는 역이었다. 노이산츠는 아주 작은 마을로 주요 노선은 그 역을 지나지 않는다. 급료가 높은 네덜란드 쪽 공장으로 일하러 다니는 독일 노동자들이 아침저녁으로 통근하는 기차들이 고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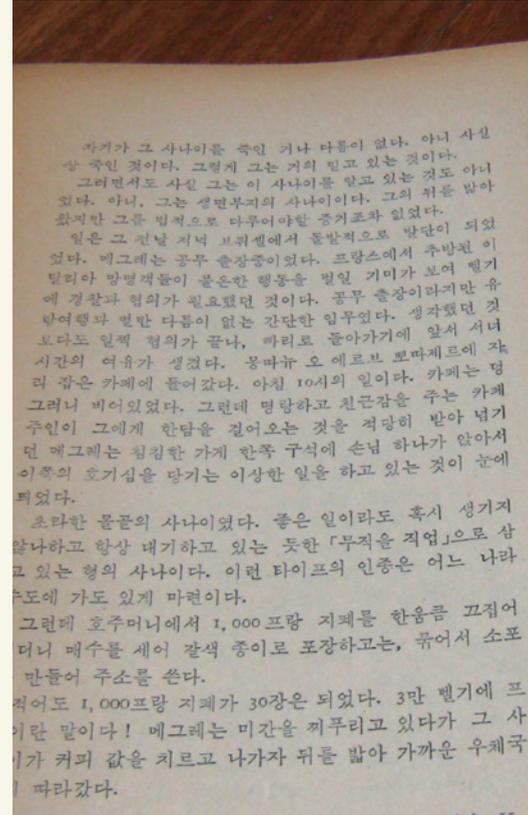
1
수사반장이 저지른 범죄

아무도 평생을 눈치채지는 못했다. 그 작은 정거장의 대합실에서 지금 한가져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대합실에는 겨우 여섯명의 여객이 눈적인 표정으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커피와 맥주와 레도네이드의 냄새가 코를 쫓는다.

오후 5시였다. 밤이 밀려오고 있었다. 전등도 이미 꺼졌다. 그대도 대합실 유리창 밖으로는 독일과 네덜란드 두 나라의 세관원과 정거장 직원들이 이복이복만 흔들음을 볼 수 있었다.

이 노이산츠 Neuschanz 역은 네덜란드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국경과 접해 있다. 주요역은 되지 못한다. 노이산츠 자체가 보잘것 없는 고을이었다. 마라시 간선(幹線)도 통과하지 않는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기차가 다닐 뿐인데, 임금이 비싼 이유로 네덜란드쪽 공장에 다니는 독일 노동자들이 이 기차를 이용했다.

매번 관에 박힌 행사가 반복된다. 독일의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설 때는 이미 네덜란드의 기차가 반대쪽 철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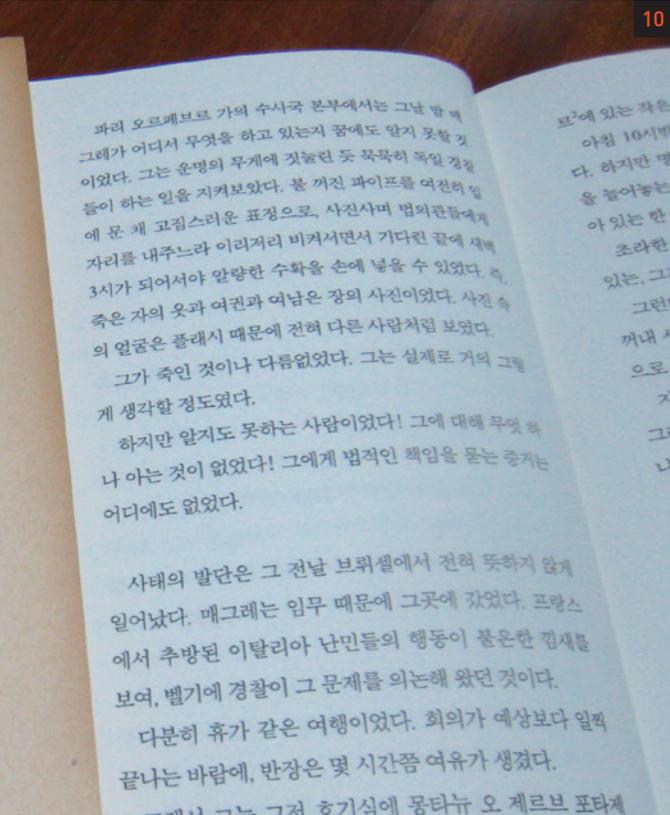
자기가 그 사나이를 죽인 거나 타름이 없다. 아니 사실 상 죽인 것이다. 그렇지 그는 거의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실 그는 이 사나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니, 그는 생면부지의 사나이다. 그의 뒤를 밟아 왔지만 그를 법적으로 다루어야 할 증거조차 없었다.

일은 그 전날 저녁 브뤼셀에서 출발적으로 발단이 되었다. 매그레는 공무 출장중이었다. 프랑스에서 추방된 이탈리아 망명객들이 불온한 행동을 벌일 기미가 보여 벨기에 경찰과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공무 출장이었지만 유언타행과 별반 다름이 없는 간단한 임무였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찍 형위가 끝나, 카리로 돌아가기에 앞서 저녁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 몽파뉴 오 에르브 포타제에 정리 잠은 카페에 들어갔다. 아침 10시의 일이다. 카페는 덩그러니 비어있었다. 그런데 명랑하고 친근감을 주는 카페 주인이 그에게 한담을 걸어오는 것을 적당히 받아 넘기던 매그레는 침침한 가게 한쪽 구석에 손님 하나가 앉아서 이쪽의 호기심을 당기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초라한 문관의 사나이었다. 좋은 일이라도 혹시 생기지 않나라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듯한 「무직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형의 사나이다. 이런 타이프의 인종은 어느 나라 수도에 가도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호주머니에서 1,000프랑 지폐를 한올름 꼬집어더니 매수를 세어 잘색 종이로 포장하고는, 묶어서 소포 만들어 주소를 쓴다.

적어도 1,000프랑 지폐가 30장은 되었다. 3만 벨기에 프랑이란 말이다! 매그레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다가 그 사나이가 커피 값을 치르고 나가자 뒤를 밟아 가까운 우체국에 따라갔다.



파리 오르메브르 가의 수사국 본부에서는 그날 밤 매그레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운명의 무개에 갇혀있던 듯 묵묵히 독일 경찰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볼 꺼진 파이프를 여전히 입에 문 채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사며 법의관들에게 자리를 내주느라 이리저리 비켜서면서 기다린 끝에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알량한 수확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죽은 자의 옷과 여권과 여남은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얼굴은 플래시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실제로 거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에 대해 무엇이 나 아는 것이 없었다!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태의 발단은 그 전날 브뤼셀에서 전혀 뜻하지 않게 일어났다. 매그레는 임무 때문에 그곳에 갔었다. 프랑스에서 추방된 이탈리아 난민들의 행동이 불온한 짐새를 보여, 벨기에 경찰이 그 문제를 의논해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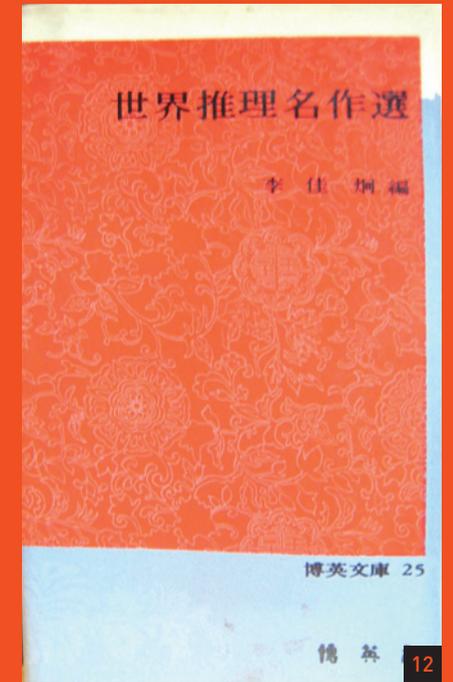
다분히 휴가 같은 여행이었다.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는 바람에, 반장은 몇 시간쯤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그는 그저 호기심에 몽타뉴 오 제르브 포타제

07 『밤부두 밤안개』 표지
08 『100개의 교수목』 표지
09, 10 『생폴리앵에 지다』와 『백 개의 교수목』 본문 비교

다. 이 작품에서는 엘리리 퀴와 범인 찾기 대결을 벌여도 이길 판이다. 정말 단편집을 따로 낼 가능성이 없는 건지?

이 외에도 몇몇 단편집들에 심농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찾지 못했다.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 모 세계문학전집에 수록되었던 단편으로 기억하는데, 정말로 끔찍한 어린 형제를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엄마의 이야기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들은…… 기억나시는 분들은 제목을 알려 주시길.



■ 조르주 심농의 아들이자 저작권 관리자인 존 심농은 1970~1980년대 한국에서 출간된 심농 도서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심농의 옛 도서 판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존 심농의 메일(john.simenon@simenon.co)로 연락 주세요.

11 『제1호수문』 표지
12 『세계추리명작선』 표지

매그레 반장, 수상한 인간들은 쫓다

“ 맥주하고
샌드위치 좀
주문해 주게.
말랑말랑한 거 말고!”



01



이거면
되려나요?

좋은 한잔이면
... 안 되겠지?



“ 거기 종업원은 서너 잔쯤 채워
올만큼 약삭빠르다니가.
아마 샌드위치도 몇 개 더
없어서 가져올걸.”

그리고 이제부터

“ 어서 말해
보라니까...”



제정신이야?

“ 하는 수 없군...”

가
나
나
나
나
나

매그레와의 수상한 첫 만남은
그가 들이키는 알코올이 도수를 높일수록
그가 말하는 <균열 이론>은 가슴에 와 박힌다.



“ 이는 한마디로 모든 범죄자,
모든 악당의 내부에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한 이론이다. 사실 그들은 대개 게임 상대,
즉 저그이 모습이거나와 보통은 그런 모습과 대결하는
식의 모든 작전이 진행되기 일쑤다.”

다만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일종의 <균열>을 찾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다는 게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다. 다시 말해,
게임 상대한테 생기는
어떤 <틈>사이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말이다.”



결코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으면서
절대적으로 정의롭지만은 않은 수상한 매그레 반장.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매그레 반장이 좋다.

“ 지금 있는 곳에서
초선을 다 하게!”



책꽂이 사이에 암전히 숨겨 둔
위스키를 부르는 소설
“수상한 라든비아인”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어요?



위스키 탄 커피라면
마시겠네.

매그레 반장이 맥주를,
위스키를, 암샴프를 마시는 이유를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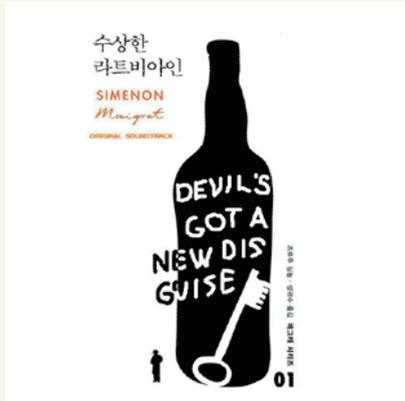


오래전부터 책을 읽을 때마다 좋은 장면이 나오면 여기에 어울릴 만한 음악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소설에서도 영화처럼 사운드트랙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소망 정도로만 남아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매그레 덕분에 실현하게 되네요. 그냥 조출하게 BGM 삼아 편견 없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상한 라트비아인

75권의 대장정을 향한 기념비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앨범 표지도 열린책들의 커버를 그대로 따와 봤습니다. 1930년대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닥쳐 온 정체성의 혼란을 잘 담아 낸 매그레의 첫 작품이니만큼 제목은 특별히 〈Devil's Got a New Disguise〉로 정했습니다.

노래는 세 곡을 선곡했습니다. 정신없이 수신되는 전보들과 거기에 맞춰 황망하게 움직이는 매그레에 발맞춰, 오프닝은 Aerosmith의 Dream On을, 두 번째는 여기 나온



OPENING
AEROSMITH-DREAM ON
SECOND
SANTANA-BLACK MAGIC WOMAN
ENDING
HALL & OATES-SARA SM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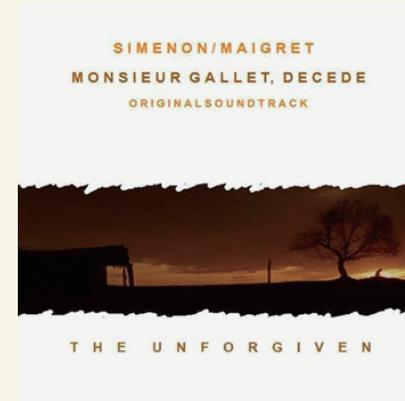


범죄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 사랑의 테마로, 특히나 그 범죄자의 심정에서 Santana의 Black Magic Woman을, 마지막론 그러한 비참한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범죄까지 저지른 그가 결국은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미소가 아니었을까 싶어 그의 넋을 달랜다는 의미로 Hall & Oates의 Sara Smile을 선곡해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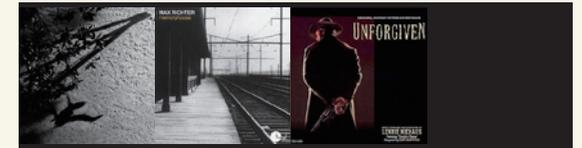
2. 갈레씨, 홀로 죽다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시대와 맞지 않았던 탓에 한없이 불운하게 살 수 밖에 없었던 갈레 씨. 그 갈레 씨는 아무도 자기에게 신경 써주지 않아도 가족들을 위해 커다란 희생마저 감내합니다. 그래서 갈레 씨는 그냥 갈레 씨가 아니라 어쩐지 바로 우리 아버지 같기도 하고 이웃집 가장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치르고도 결국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그렇게 그저 용서받지 못한 채, 홀로 죽어 버린 갈레 씨를 위해 일종의 레퀴엠으로서 이번 앨범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앨범 제목도 <The Unforgiven>입니다. 오프닝은 특별히 영화에서는 갈레 씨의 마지막 하루를 먼저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의 하루를 묘사하는 가운



OPENING
MAX RICHTER - THE NATURE OF DAYLIGHT
SECOND
MAX RICHTER - EMBERS
ENDING
CLINT EASTWOOD - CLAUDIA' S THEME



데 흐르면 좋을 만한 곡으로 요즘엔 영화 음악으로 유명해진 Max Richter의 On The Nature of Daylight을, 두 번째 곡으로는 매그레가 용의자 한 사람을 두고 그의 앞에서 갈레 씨의 삶을 천천히 들려주는 장면에서 흘렀으면 좋을 만한 곡으로 역시 Max Richter의 Embers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OST에도 쓰였으며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직접 작곡한 곡이기도 한 Claudia's Theme를 골랐습니다. 이 음악은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저세상에서만큼은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한 남편의 간절한 염원도 잘 담고 있는 듯하여 선곡해 봤습니다.

3. 생폴리앵에 지다

심농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생폴리앵에 지다』는 젊은 시절 같은 꿈을 꾸었으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적 사건으로 세월 속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버린 사람들을 그립니다. 그렇게 그 사건으로 인해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났지만 그 누구도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마치 목 매달린 자처럼 늘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살아야만 했었죠. 이번의 사운드트랙은 그런 그들을 위한 음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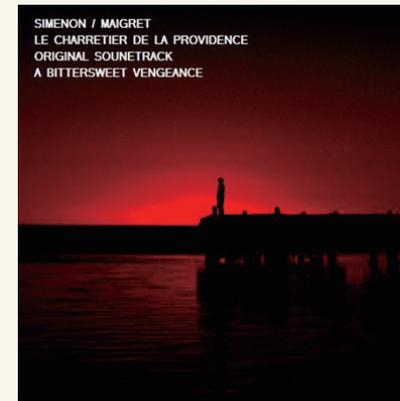
OPENING
DEEP PURPLE - CHILD IN TIME
SECOND
COWBOY JUNKIES - SWEET JANE
ENDING
BRUCE SPRINGSTEEN - THE RIVER



그래서 앨범 타이틀도 <Children in Time>이고 오프닝은 그들의 그런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가사를 지닌 Deep Purple의 Child in Time을 골랐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묵시록의 동지들>과 매그레가 한 카페 테이블에서 마주하는 장면인데, 심농은 여기다 주위 상황은 또 어떤지 삽화처럼 보여 주어 어떤지 「중경삼림」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며 Cowboy Junkies의 Sweet Jane을, 마지막으로 소설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을 뒤로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일상의 모습처럼 그렇게 세월은 그것을 간직한 채 흘러갈 것이라는 여운에 어울릴 만한 그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Bruce Springsteen의 The River를 선곡했습니다.

4.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

마치 뒤마의 복수극을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사실 『생폴리앵에 지다』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온갖 부재의 이미지로 가득한데요. 그것은 왠지 『생폴리앵에 지다』에서 죽은 클랭을 연상시키고 이 소설의 범 죄자는 마치 그 클랭처럼 지워진 자, 부재하는 자가 심농 자신에게 복수하는 듯한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



OPENING
AL STEWART - YEAR OF THE CAT
SECOND
GILBERT O' SULLIVAN - ALONE AGAIN
ENDING
JIMMY CLIFF - MANY RIVERS TO CROSS



죠. 그래서 앨범 타이틀을 <A Bittersweet Vengeance>로 잡았습니다. 배경이 주로 운하인지라 물의 이미지와 어울릴 만한 곡들을 선곡했는데요, 오프닝은 빛소리처럼 청명한 보컬을 들려주는 Al Stewart의 Year of the Cat(사실 가사도 이 소설의 주가 되는 사랑의 모습에 잘 어울리기도 하지요)을, 두 번째 곡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져도 무심한 채 자신의 고독 속에 매몰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서든 크로스호의 인물들 모습에 어울릴 만한 Gilbert O' Sullivan의 Alone Again을, 마지막으로 한 여자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배신 그리고 그녀에 대한 복수 끝에 결국엔 죽음에 이르고야 만, 마치 그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노래이기도 한 것 같아서 Jimmy Cliff의 Many Rivers to Cross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네 권의 OST가 다 끝이 났네요. 제 나름의 감상 기준에 따라 곡을 고른 것인 만큼 얼마나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매그레의 분위기를 느끼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come across MONET followed by MAIGRET

ID • 영주

매그레를 따라가다 모네를 만나다



예술을 분류할 때, 보통은 아주 간단하게 공간 예술과 시간 예술로 분류하곤 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공간 예술의 범주에는 회화와 건축이 들고 시간 예술의 범주에는 음악, 그리고 문학 같은 것이 든다. 그러나 이런 분류가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다. 하나에서 어느 하나를 구별해 낼 수 없는,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지는 때 말이다. 바로 매그레 반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화가 모네를 만나게 되었을 때가 그랬다.

매그레 반장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한 것은 학창시절 문학 시간에 단골 주제로 등장했던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중 배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을 이른바 <매그레의 발자취를 찾아서>로 정했다.





모네, 「생라자르 역」, 1877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프랑스의 북부, 르아브르와 페캉.

아침 7시 반, 매그레 반장이 파리 - 르아브르 간선 열차를 타고 와 내린 라브레오테 역은 페캉이라는 고을의 분위기를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었다. _수상한 라트비아인 中

이 두 마을은 모두 바닷가에 있다. 르아브르가 비교적 큰 마을이라면 페캉은 르아브르로부터 40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매우 작은 곳이다.

매그레가 그랬듯이 파리의 생라자르 역에서 르아브르행 열차를 탄다. 우리의 KTX 같은 고속 열차인 테제베가 아닌 코라유라고 하는 기차다. 지금도 파리에서 페캉까지 가는 직행 편은 없으므로 페캉을 가려면 이 열차를 타고 가다 중간에 브레오테라는 곳에서 갈아타야 한다.

파리에서 르아브르까지는 195km(지금은 기차로 두 시간이 걸린다). 생라자르 역에서 아침 7시 31분 기차를 타고 페캉까지 가면 9시 52분쯤 페캉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한다.

르아브르는 인상파의 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현대 미술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모네의 「해돋이, 인상」은 이

곳에서 태어났다.

모네는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소년 시절을 르아브르에서 보냈으며, 그곳에서 화가 부당을 만나, 외광(外光) 묘사에 대한 초보적인 화법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19세 때 그는 다시 파리로 가서 아카데미 스위스에 들어간다.

수상한 라트비아인을 추적하는 매그레. 수상한 라트비아인의 발자취를 따라 페캉에 도착한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파도가 차례차례 제방으로 몰아치면서 높이 치솟았다가는, 새로운 기세를 모아 되돌아오기 위해 희부연 물결로 멀어져 갔다. _수상한 라트비아인 中

모네도 매그레와 같은 감정을 느꼈던 걸까? 그곳엔 아무도 없었으니까. 다만 높이 치솟는 파도와 절벽만이 있을 뿐이었다.

스완 부인의 종교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페캉은 최근 순례지뿐만 아니라 여러 박물관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파리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르아브르에서 영화 한 편을 만났다. 블랙 코미디의 대가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르아브르」는 유럽의 불법 이민 문제를 음악이라는 보편적 공감대를 통해 풀어내는 작품으로 낙관적 분위기를



모네, 「페캉의 절벽」, 1881
모네, 「잔잔한 페캉」, 1891
모네, 「페캉, 바닷가」, 1881

속에 야릇한 불안을 남겨 두고 있지만, 64회 칸 영화제에서 평단과 관객 모두를 만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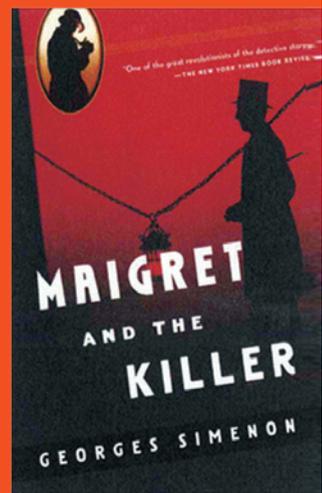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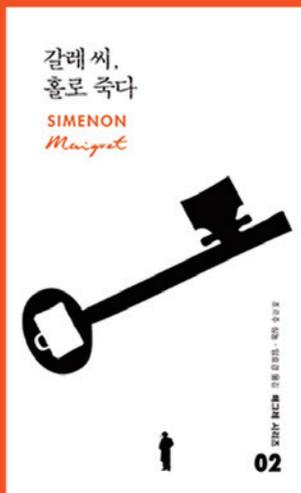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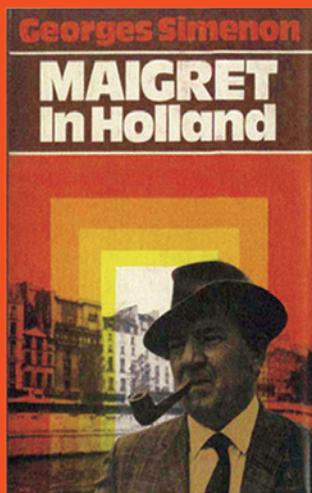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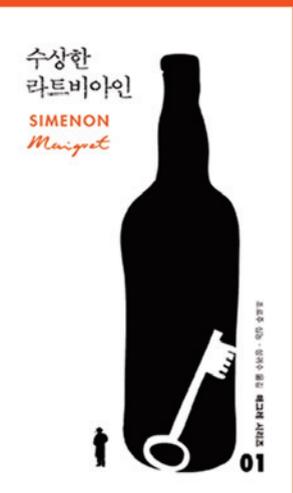
냉소적이며 차갑고 비인간적인 인간관계를 비트는 유머로 주목을 받아 온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영화 가운데 가장 따뜻하다고 평가되는 이 영화는 르아브르에서 구두닦이를 하는 노인이 아프리카에서 밀입국한 흑인 소년을 어머니가 있는 영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가슴 훈훈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매그레를 따라 나서다 화가 모네를 만났고, 영화 한 편을 감상했다. 시간 예술과 공간 예술이라는 예술에서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영화에 이르러 이미 희미해지고 말았다. 예술에서뿐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이분법적인 분류를 좋아한다. 문학과 미술, 시간과 공간, 과거와 현재, 거기와 여기. 그러나 발자취는 둘로 나뉘 생각할 수 없는 하나와 하나가 맞닿는 곳에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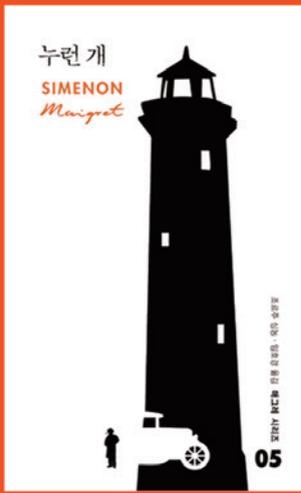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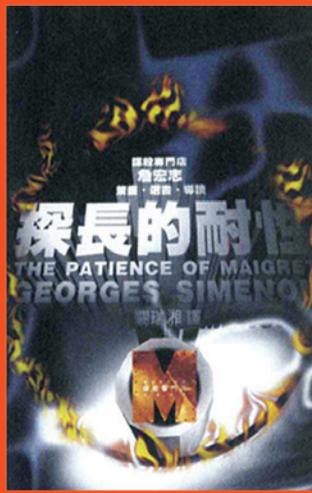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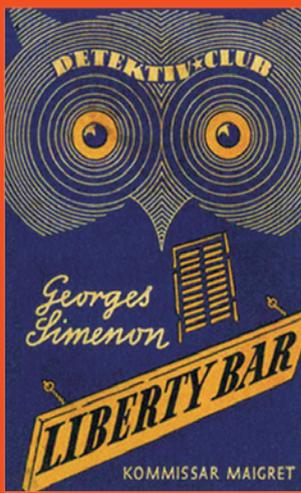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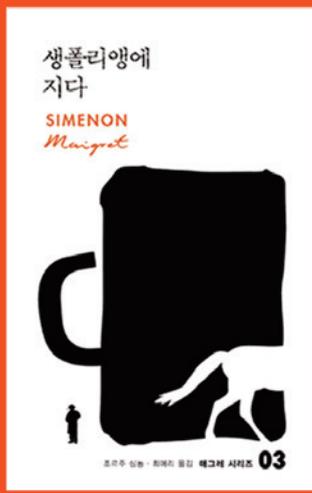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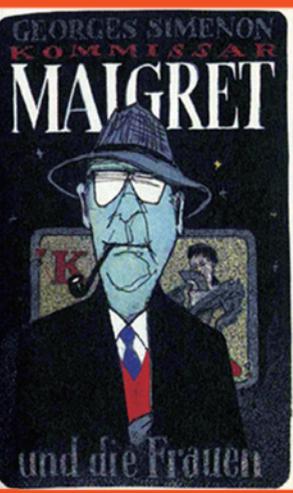


참고
<http://lavalse.tistory.com/48>
<http://www.ville-lehavre.fr>

이키 카우리스마키, 「르아브르」, 2011



ID • 하이드 | 매그레, 표지를 말하다



매그레 시리즈는 여러가지 면에서 놀라움을 준다. 비주류에 속하는 추리소설, 그것도 그의 세계적인 명성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덜 알려져, 인지도가 없는 조르주 심농의 매그레 시리즈가, 전집으로, 열린책들에서 나오다니!

전작주의인 열린책들의 누군가 덕분에 열린책들하면 떠오르는 책들에는 <전집>이 많다. 빨간 도스또예프스키 전집을 비롯하여, 나에겐 최고의 즐거움이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 전집, 프로이트, 그리고 가장 최근 론칭된 로베르토 볼라뇨 전집까지.

이들 전집은 <전집>이라는 것 외에도, 그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회자되곤 하는데, 이혜승 작가의 작품이 실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든가, 아후벨과의 작업으로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작가의 작품과 표지 디자이너의 작업이 동시에 기대되는 볼라뇨 전집이 그렇다.

이번 매그레 시리즈의 표지는 지금까지 전집을 내고, 그 디자인에 힘써



지금까지 나온 네 가지의 표지는 각각 술병, 열쇠, 가방, 말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하얀 바탕에 검정색, 단순화한 이미지, 책 표지에는 잘 쓰지 않는 오렌지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온 열린책들 작업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달에 두 권씩 나와 75권 완간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매그레 시리즈, 두 권씩 짝지어진 표지가 눈에 띈다. 1권의 술병 이미지 안에는 2권의 열쇠 그림이 숨어 있다. 3권의 가방 그림 안에는 4권의 말 그림이 숨어 있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의 짝만 눈에 들어올지 모르나, 자세히 보면, 모든 표지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권의 열쇠 그림에는 3권의 가방 그림이 숨어 있다. 4권의 말 그림에는 5권에 나올 등대 그림이 숨어 있다.

매그레 시리즈는 시리즈물이긴 하지만,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권부터 읽어도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한 권의 이야기에서 한 권의 표지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권씩 짝을 지은 이미지, 전 권이 연결되는 이미지를 생각해 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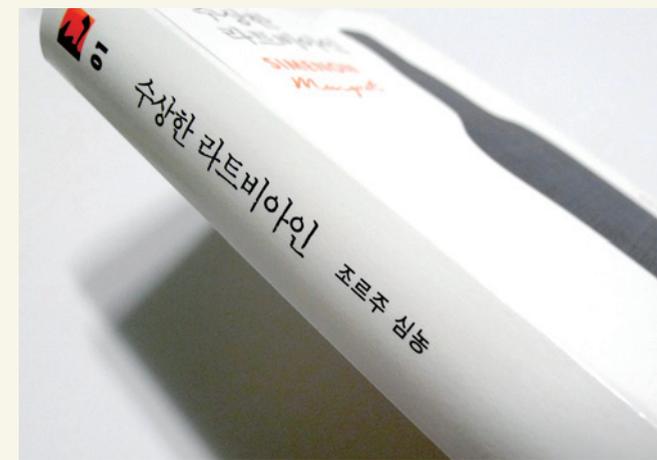
는 질문에 주간님께서 언젠가의 심농의 인터뷰로 답변을 대신하신다. 다작 작가였던 심농에게 왜 비교적 짧은 장편만 쓰고, 긴 장편이나 대작이 없느냐는 질문에, 심농은 자신의 작품은 모자이크처럼, 다 모이면 하나의 커다란 작품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답변에서 힌트를 얻어 나온 것이 바로 이번의 전집 표지이다.

독립된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 매그레와 매그레를 둘러싼 이야기와 감상들을 쌓아 나간다. 75권의 전집을 내는 출판사의 긴 여정과 그 전집을 읽어 나가며 함께하는 독자들의 몇 년간이 모이고, 또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추리소설 같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장님의 오케이가 나지 않아 디자인 팀장을 울렸던 이 표지 디자인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위에서 이 표지 디자인들이 계속 연결된 이미지이고, 매그레 이야기처럼 표지 디자인도 그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했다. 디자인 팀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표지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조르주 심농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은 아들인 존 심농인데, 표지 이미지와 심농과 관련해 쓰이는 모든 이미지(카페 이미지에서 이벤트 홍보 이미지까지!)를 <관리>하고자 하였고, 표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살





인이나 범 죄를 연상시키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추리소설에 추리소설을 연상시키는 표지는 안 된다니, 이 디자인을 만들어 낸 디자이너의 고뇌가 느껴지지 않는가? 존 심농은 클리셰를 지양하고자 하였고, 자극적인 이미지들을 피하고자 하였다.

세계적으로 널리 읽혀 온 심농의 표지는 과거에는 충분히 자극적이고 추리소설 같았지만, 이제부터라도 관리 들어가는 심농의 표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을 열린책들의 디자인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자랑스러움은 물론이고, 세계의 다른 우수 출판사들도 조르주 심농의 아들에 의해 주어 진 디자인 족쇄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돌파할지 기대되기도 한다.



최종 디자인이 선택되기까지 만들어진 시안들

놀라움은 끝나지 않는다. 매그레 시리즈 전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록, 책갈피.

정말 놀랐다. 메탈로 만들어진 책갈피는 엄청난 고크러티로 표지 이미지를 카피하고 있다. 이렇게 멋진 부록은 본 적이 없다. 끈은 책마다 다른데, 블랙 앤 화이트의 끈이 있는가 하면 블랙 앤 골드도 있다. 다음 5, 6권에는 레드 샤무드라고 한다. 계속 바뀌어 나갈 책갈피 끈마저도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시리즈라니!

지금까지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북 디자이너의 영역은 표



지 디자인에 그치지 않는다. 열린책들의 책을 꾸준히 봐왔던 독자라면, 매그레 시리즈에서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적절한 모양과 질감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시도하고, 결과물을 낸다. 책은 손에 잡고 보기 좋게 작아졌으며, 지금까지의 뽀뽀하고 두꺼운 양장 표지에 비해 손에 착 달라붙는 비교적 부드러운 양장 표지이고, 뽀뽀한 편집으로 유명했으나, 이 시리즈에선 널널하다(그러니까, 열린책들치고는 말이다). 이처럼 기존의 열린책들 특유의 디자인을 고집하지 않고, 편집의 성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디자인을 찾

아 새로운 열린책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실로 꿰매는 정통적인 사철 방식의 제본>. 튼튼하고, 오래가는 제본 방식이다. 매그레 시리즈는 <후더닛 whodunit>보다는 <와이더닛 whydunit>인데, 편집 디자인뿐만 아니라, 읽고 또 읽어도 여전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추리소설이어서, 굳이 명사들의 화려한 찬사가 아니라도 두고두고 간직하고 꺼내 보고 싶은 시리즈이다.

디자이너와 편집자를 비롯, 여러 사람들의 노고가 서려 있는 이 멋진 매그레 시리즈의 디자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남은 71권에서 심농의 이야기대로 커다란 퍼즐을 매 권 뚜벅뚜벅 맞춰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은 서점에 진열되고, 독자는 그 책을 구매하며 자신의 책장에 꽂아 둬으로써 그 디자인을 완성할 것이다.



탐정과 담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당장 어떤 탐정을 떠올리더라도 그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모습은 쉽게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탐정과 금연, 이만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탐정 하면 담배를 꼬나문 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아마도 흡연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흡연을 하는 순간은 말을 아끼게 되고 행동이 적어진다.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유하는 것이 직업인 탐정은, 흡연이라는 습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현대의 탐정들이 필터 담배가 아닌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찾아 보기가 힘들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행동할 시간이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필터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3분 내외인데 비해, 파이프 담배는 잎의 양에 따라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두 시간까지도 피울 수가 있다. 필립 말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빅 슬립』을 보면, 그는 아직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작품 『안녕, 내 사랑』부터는 대개 필터 담배를 피우게 된다. 하드보일드 소설에서는 행동이 사유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담배를 피우는 쪽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드보일드 소설이 주를 이루는 현대 추리소설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화된다.

그렇다면 매그레는 어떨까? 매그레의 흡연 습관은 어떤 식일까? 그는 얼마만큼의 담배를 피우고, 어떤 방식으로 담배를 피울까, 그리고 그가 피우는 담배는 어떤 것일까? 이 글에서는 초기작에서 나타나는 그의 흡연 습관을 중심으로 그가 피우는 담배의 종류까지 분석해 갈 계획이다.

1. 매그레는 어떤 담배를 피울까?

매그레 반장은 주로 파이프 담배를 피운다. 이는 매그레 시리즈가 추리 소설의 과도기적인 시대의 작품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설록 홈스와 필립 말로 사이에 위치한 매그레 반장은, 홈스에 비하면 행동적이지만 말로에 비하면 행동이 적은 캐릭터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파이프 담배와 켈런은 탐정의 행동의 양과 관련이 있는데, 행동의 양이 황금기의 탐정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매그레 반장치고는 조금은 의아한 선택이다.

사실, 우리가 흔히 피우는 필터 담배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25년도에 처음 소개된 필터 담배는 1950년대에까지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분류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상용화되었다고 한다. 그 전



까지의 켈런은 일종의 말아 피우는 담배로 인식되었다. 대실 해밋의 『몰타의 매』를 보면 샘 스페이드가 담배를 말아 피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위 사진과 같은 것이다.

『생폴리앵에 지다』를 보면 매그레가 <아바나의 켈런(즉, 시가)>을 피우는 모습 또한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용의자가 권했기 때문에 피운 것이지, 스스로 이런 종류의 담배를 소지하고 다니지는 않는다. 『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를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온다.

「담배 태우시겠습니까?」

「됐소.」

「참 반장님은 파이프 담배를 태우시지.....」

정리하자면, 매그레는 파이프 담배 애호가이다. 켈런이나 시가를 피우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도 대부분 상대방을 떠보기 위해서(혹은 용의자의 마음을 맞춰 주기 위해) 켈런을 피우는 것에 불과하다.

2. 흡연량

매그레는 하루 평균 몇 회 정도의 담배를 피울까? 소설을 뒤적거리며 정확하게 그가 담배를 피우는 횟수를 세어 보았다.

『갈레 씨, 홀로 죽다』는 총 사흘간 이야기가 진행된다.

첫째 날 2회, 둘째 날 2회, 셋째 날 4회

『생폴리앵에 지다』는 총 나흘간 이야기가 진행된다.

첫째 날 1회, 둘째 날 2회,

셋째 날 꺾련 2회, 파이프 5회, 넷째 날 2회

『라 프로비당스의 마부』는 총 사흘간 이야기가 진행된다.

첫째 날 3회, 둘째 날 1회, 셋째 날 0회

매그레를 생각하면 곧장 파이프 담배가 떠오르지만, 매그레는 생각보다 흡연을 자주 하지는 않는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2회 정도밖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매그레가 잠에 드는 부분이나, 아침에 일어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묘사되지 않는다. 보통의 흡연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잠에 들기 전에 흡연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평균 4회 정도 흡연을 하

는 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는 『라 프로비당스의 마부』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증언으로 인해 무참히 산산조각 나고 만다.

첫 파이프 담배를 피우던 매그레가 커피를 가져온 아가씨에게 문을 열어 주러 갔다.

앞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매그레는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깨어난 지 몇 시간이 흐른, 새벽 6~7시경에 첫 담배를 피운다. 시각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그가 잠에서 깨어난 뒤 3~4시간이 흐른 뒤 첫 담배를 피운 것으로 추측된다. 즉, 매그레는 아침에 일어나 자마자 담배를 찾는 흡연가는 아니라는 말이다. 잠에서 깬 후에 곧바로 담배를 찾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잠에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담배를 찾는 종류의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헤비 스모커>인 매그레의 이미지가 점점 부서지기 시작한다. 고작해야 하루에 두 번 이상의 흡연을 하지 않는 탐정을, 파이프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게 너무하다는 생각도 든다.

3. 매그레가 사용하는 파이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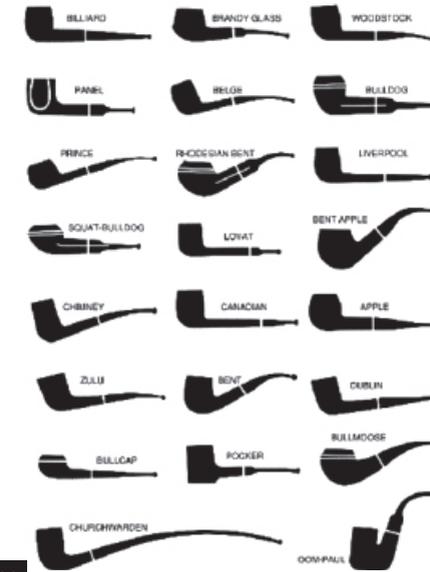
파이프의 종류는 모양에 따라서도 분류하고 재질에 따라서도 분류한다. 재료는 나무(주로 장미목), 도기, 해포석, 옥수숫대가 주를 이룬다. 매그레가 어떤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하는지 확실하게 명시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해포석 파이프나 도기 파이프를 응시하면서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아닌 듯하다. 또한 1930년대에 프랑스에서 옥수숫대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 아마도 그가 사용하는 파이프는 나무로 된 파이프일 것이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남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파이프를 애용했을 것이다.

영화 속의 매그레를 살펴보면, 좌측 상단에 위치한 쭉 뻗은 모양의 파이프를 주로 사용한다. (빌라드Billard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이프 중 하나이다. 탐정들이 주로 물부리가 굽은 벤트(BENT, 여섯째 줄 두 번째)를 자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 독특한 선택이다. 빌라드는 멋대가리가 없다고 할 만큼 너무 몰개성한 파이프인데, 오히려 이 점이 매그레가 이 파이프를 선택한 계기가 아닐까 싶다. 경찰이 남들의 눈에 띄어서 좋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또한 매그레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그가 왜 이런 종류의 파이프를 사용하였는지 짐작이 되기도 한다. 벤트 형식의 파이프는 물부리가 아래로 굽어 있어 입에 물고 있기가 편하다. 하지만 빌라드는 손으로 잡고 있지 않는 이상 입에서 떨어트리기가 쉽다. 파

이프를 피우던 도중 빠르게 행동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빠르게 입에서 뺄 수 있는 빌라드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01



02



03

01 해포석 파이프, 해포석은 가공하기가 좋아 장식적인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진다. 터키에서 주로 사용된다.

02 파이프의 모양에 따른 분류.

03 장미목에 빌라드 형태의 파이프, 매그레가 사용하던 파이프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매그레와

수상한 퍼즐

by 아이릿

자... 다들
돈보기 준비하세요



1

	가1	세1			세3		가5		
가2									
				가4	세2		세4		세5
가3									
				가11	세8				세6
세11							가6		
	가7	세9							
가8									
				세10			세7		
	가9					가10			

가로

1. '늑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이브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빠로 만들었다.
2. 조르주 심농이 탄생시킨 <○○○ 시리즈>의 주인공.
3. 조르주 심농은 자신의 <매그레 시리즈>를 알리고자 ○○○을 빌려 행사를 열었다. 춤을 출 수 있는 무도회장과 같은 말.
4. 조르주 심농의 <매그레 시리즈>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은 책. 『수상한 ○○○○○』.
5. 대부분의 탐정이 지니고 있는 트레이드마크이며 추리소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물건. 매그레 반장도 애용하는, 살담배를 담아 피우는 서양식 담뱃대.
6. 영국의 희극배우 · 영화감독 · 제작자이며 「황금광 시대」, 「모던 타임스」 등 무성영화와 유성영화를 넘나들며 연기한 배우. 찰리 ○○○.
7. 추리소설에 자주 등장하며, 피해자가 범인의 이름이나 특징을 이것으로 남겨놓아 탐정이나 형사로 하여금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메시지.
8. 나비목의 곤충으로 낮에 활동하는 무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 모양의 ○○넥타이도 있다.
9. <매그레 시리즈>를 집필한 작가는 ○○○ 심농이다.
10. 총 75권의 <매그레 시리즈>를 출간하겠다는 야심판 목표 아래 탄생한 조르주 심농의 버즈북은 ○○○원이다.
11. 다섯 가지 맛. 신맛 · 쓴맛 · 매운맛 · 단맛 · 짠맛을 이른다.

세로

1. 5월 20일 출간된 <매그레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의 제목.
2. 방송국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잡아 이것을 음성으로 복원하는 기계. 박중훈과 안성기가 주연한 영화는 「○○○ 스타」이다.
3. 조르주 심농은 열여섯 살의 나이로 벨기에 지역 신문 「○○○ 드 리에주」지의 기자가 되었다. <나와 라 만능 팔!>이라는 유행어를 만들기도 한 유명한 만화영화도 있다.
4.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혹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왕년의 하이틴스타 최수종과 하희라가 주연한 영화는 「있잖아요, ○○이에요」이다.
5. 조르주 심농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 측정 무도회>란 행사를 열기도 했다. 사람의 몸.
6. 움베르토 에코, 파트리크 쥐스킨트,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을 발굴해 국내에 널리 알렸으며, 최근 조르주 심농의 추리소설을 펴내기 시작한 출판사는?
7. 출판사 열린책들은 1986년 설립되어 러시아 문학 전문 출판사로 출범했다. 올해, 즉 2011년은 열린책들의 창립 ○○주년이 되는 해이다.
8. 모방 혹은 현실의 재현을 뜻하는 문학 비평 용어이자, 2005년 열린책들이 설립한 본격적인 예술 전문 출판사.
9. 글씨를 쓰거나 인쇄하는 데 쓰는 유색의 액체. 펜이나 붓 등에 사용한다.
10. 「매그레는 왜 ○○를 마시나?」하는 질문에 조르주 심농은 「그럼 페퍼민트나 아니스 주라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한 적이 있다. 보리의 맥아에 홉(hop)을 첨가하여 만든 술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주에 섞어 마시는 사람들도 간혹 목격되곤 한다.
11. ○○○○ 베르베르는 『개미』, 『나무』 등을 집필했으며, <프랑스의 천재 작가>로 불린다.

* 정답은 73쪽에

여 자 , 수 치 스 러 운 매 독 앓 이 i n g

혼자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최근 남자 보는 눈이 현격히 달라졌다. 그 변화가 너무 심해 현기증이 날 정도다. 얼마 전까지 나는 이른바 <아이돌빠순이>였다. 나이 들수록 아이돌 미소년 팬이라는 게 남들 앞에서 밝히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본태女>라고 오해하지 마시라. 세상 모든 남자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있다는 외로움에 뻗속까지 마음이 시린 날, 아이돌 미소년들의 노래나 관련 사진을 감상하는 것뿐이다. 물론, 검은 양심에 손을 얹고 꽃소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 좋다고 쫓아다니면 좋겠다는, 엉큼한 상상을 안 해보지는 않았다. 동방신기 최강창민과 샤이니의 민호 사이에서, 꽤 오랫동안 only 나 홀로 상상 속에서 사랑을 저울질했었다. 그런데 근 두 달 사이에, 동방신기고 샤이니고 내 머릿속에서 몽땅 지워졌다. 대신, 새로운 남자 두 명이 내 맘을 참기름 짜듯 쥐어짜고 있다. 그 남자들만 생각하면 밤잠까지 설칠 정도로 수치스러운 짝사랑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내가 요즘 필 충만하게 꽃힌 두 명의 남자는, 중년 아저씨들이다. 그것도 품절남! 미치겠다. 게다가 한 명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태어난 프랑스 남자고, 나머지 한 남자는 실제로 스물세 살짜리 아들까지 두고 있다. 문제

는 이들이 아이돌보다 더욱 현실 감각 없는 남자들이라는 거다. 프랑스 남자는 실제 인물도 아닌 소설 속 주인공이다. 프랑스의 국민 작가 조르주 심농의 추리소설 <매그레 시리즈>의 주인공 매그레 반장에게 훌쩍 반해서리, 긴긴밤 잠도 안 자고 며칠째 심농의 책만 읽고 또 읽고 있다. 동시에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우월한 기력지의 소유자인 배우 차승원이 연기하는 톱스타 독고진에게 완전 홀릭했다. 죽었다 깨어나도 실제로 만날 가능성 제로인 허구의 남자들에게, 그것도 중년 남자에게 반하다니, 아이돌 미소년 오덕후를 자랑스러워했던 심장에 스크래치 제대로 났다. 하트 브레이커! 그들 때문에 하트가 뽀개졌다는 말씀.

아리아리한 꽃돌이들에게 안녕을 고하고 짐승남 바디퀄리티 자랑하는 중년돌(?)에게 빠진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이 타인의 상황과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남자들이어서다. 20년 가까이 가족들을 속이고 사기꾼으로 살아온 전직 외판원 갈레 씨의 죽음도, 매그레 반장의 눈을 통해 동시대 아버지들의 삶의 피로로 읽혔다(『갈레 씨, 홀로 죽다』). 여자 때문에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한 마부의 초라한 마지막 삶의 보금자리도, 그로 인해 삶의 온기를 담은 장소로 보였다(『라 프로비당스호의 마부』). <난 독고~지니니까!>를 외치며 입만 열면 잘난 척하던 톱스타 독고진 또한, 비호감 생계형 연예인 구애정에게 너를 동정하기보다 공감한다는 말로 사랑 고백을 대신했다.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로 시작하는 이해의 시선에서 출발

해, 매그레 반장은 범죄자에게서 보편적 인생의 애환을, 독고진은 진실한 사랑을 끄집어냈다. 이것이 공감이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공감해 주는 타인을 만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브라운관 속에서 불링불링한 외모로 나를 미소 짓게 했던 미소년들에게 내가 바란 것은 그저 안구정화였다. 비루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신기루이자 도피처에 불과했던 것. 하지만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생계형 연예인보다 초라한 현실이, 예전 모습 그대로 날 기다리고 있었다. 매그레 반장과 독고진은 달랐다. 허구의 인물인데도 그들은 껍떡한 삶에 윤기를 더해 줬다. 스스로도 반박만 했던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누군가가 공감해 줄 것이라 믿으며 처음으로 스스로 동의했다. 이것의 공감의 파급력이다. 물론, 공감할 줄 아는 남자들이 미소년이 아니라는 점은 개인적 취향에서 이쉽지 그지없다. 그럼에도 초라한 인생에 공감을 표할 줄 아는 아저씨들이 있어, 노처녀는 <극복! 회복! 행복!>을 외치며 오늘을 산다. 그들이 한낱 허구의 인물일지라도 말이다. 매그레 반장과 독고진을 향한 수치스러운 짝사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그레와 독고진을 줄인 <매독앓이>가 되는 건가? 매독이라니! 하긴 <아무나 한의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매력은 매독만큼 치명적이긴 하다.

심 농 과 세 이 초 의 가 상 대 담

프랑스의 거장 조르주 심농(1903.2.13-1989.8.4)와 일본 추리 소설계의 거장 마쓰모토 세이초(1909.12.21-1992.9.4)는 시대를 풍미했던 추리문학의 거장이자, 가히 <글 쓰는 기계>라 할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작품들(심농의 경우 매그레 시리즈 103편, 본격 문학 117여 편이며 세이초의 경우 980여 편(에세이 포함)의 작품에 출간한 저서만 약 750권)을 세상에 내놓은 기인들이다. 본인이 살펴본 결과 두 작가의 공통점은 앞서 말한 다작기계라는 점 외에도 두 작가 모두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시간과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장의 반열에 오른 점, 둘 다 처음에는 순수 문학을 지향하였으나 훗날 추리문학이나 대중문학으로 전환한 점 등등 다양했다. 추리소설을 쓰는 경향 또한 매우 흡사한 것이어서 트릭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나 상황에 주목한 점, 비일상적인 기괴한 소재보다는 일상적이고 친근한 것에서 인물이나 작품의 소재를 찾은 점,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세심하게 파헤치고 해부하고 있다는 점 등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작품 경향이며 인생 편력에서 공통점이 많은 두 작가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족하나마 가상 대담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참석자: 조르주 심농(이하 심농), 마쓰모토 세이초(이하 마쓰모토)

진행자: 포와로

1 동시대인, 심농과 세이초



포와로 마쓰모토 선생님과 심농 선생님, 일본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분 거장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두 분께서는 연배도 비슷하시고, 또 두 분 모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작으로 유명하신데, 두 분 모두 서로를 잘 알고 계시지요?

마쓰모토 그렇습니다. 심농 씨와 저는 여섯 살 차이 밖에 나지 않아요. 물론 작가로서의 데뷔는 수십 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말입니다. 저도 심농 씨의 작품을 읽고 많은 영감을 얻은 독자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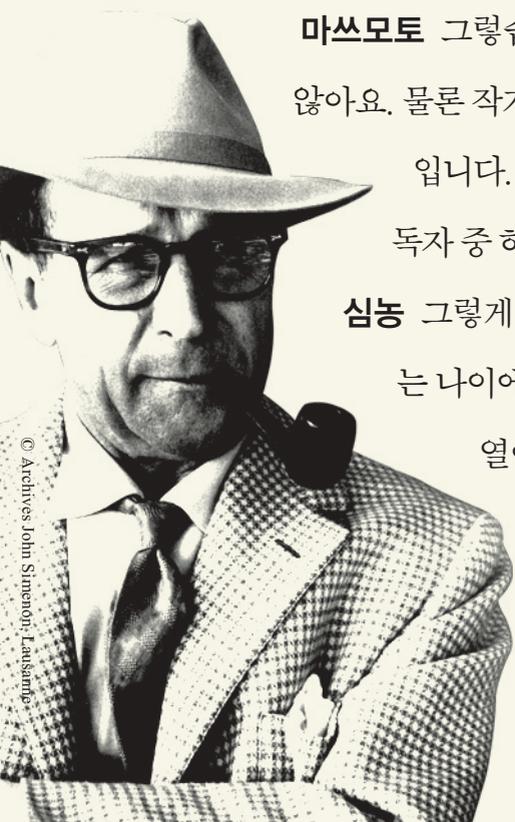
심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흔이 넘는 나이에 집필을 시작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대가의 반열에 오르신 마쓰모토 씨도 제 눈에는 경이로워 보입니다. 게다가 저와는 다르게 역사, 논픽션, 고고학 등에도 다양한 작품과 성과를

남기셨으니 작품의 질이나 깊이로 보자면 선생이 나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지요.

마쓰모토 하지만 머릿속에서 나오는 단어와 생각이 그대로 작품이 되는 사람은 천 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것인데, 심농 선생님의 재주는 선생의 작품을 읽는 저를 그야말로 경악시켰지요.

포와로 맞습니다. 마쓰모토 선생님이나 심농 선생님이나 작품의 양에서 막상막하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작품 경향이나 스타일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질은 사회성과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두 분께서는 대단히 유사한 작품 경향을 보여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농 예. 당대의 캐릭터인 셜록 홈스나 아르센 뤼팽의 활약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은 제가 쓴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의 페르소나인 매그레 반장은 경찰 계급장만 떼면 우리 옆집에서 볼 수 있을 만큼 평범하고, 진중한 데다가 맥주를 좋아하는 호인일 뿐이에요. 또 사건의 개요나 해결에 있어서도 현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트릭이나 플롯을 사용했어요. 저는 기계적 트릭보다는 당대의 프랑스를 살아가는 인간과 서민의 비애를 그려 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홈스나 뤼팽의 신출귀몰함에 반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제 두 번째 매그레 시리즈인 『갈레 씨, 홀로 죽다』에서는 셜록 홈스가 제게 미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쓰모토 제가 추리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이전의 일본 추리소설은 심농 씨와 마찬가지로 <탐정 소설>이 전부로, 에도가와 란포의 아케치 코고로와 요코미조 세이시의 긴다이치 시리즈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천재적인 트릭이 돋보이는 추리문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였지만, 현실에는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에 섬이나 마을이 주 무대가 되었기 때문에, 추리소설 매니아 외에는 다른 독자를 끌어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심농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물리적 트릭을 심리적 작업으로, 특이한 환경을 일상적인 환경으로, 주인공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고쳐 나갔습니다. 제가 성공한 이유는 탐정 소설의 현실 괴리성과 일반 독자에게서 외면받던 문예 살롱 소설의 지루함을 모두 극복한 현실성과 사회성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포와로 두 분의 작품들에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었던 동기와 심리적 묘사가 탁월합니다. 시대의 급변과 발전에 따른 범죄의 증가와 사회의 변화가 두 분의 작품 경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만…….

심농 매그레 반장은 양차 대전 사이의 시대에 출현한 인물입니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진 지 불과 2년 뒤에 『수상한 라트비아인』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지요. 게다가 프랑스 국내에서는 푸앙카레, 브리앙, 가스통 두메르그가 연이어 나라를 이끌었지만 대공황의 여파 때문에 경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정치는 미몽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경제 위기의 최초

의 결과들을 곧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 대전의 끔찍한 악몽 역시 프랑스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회적 혼란 때문에 범 죄는 급증했고, 전례 없는 끔찍한 사건들도 연이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덕분에 추리소설은 활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요…….

마쓰모토 저 또한 심농 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은 당시 조선,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만, 군부와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대죄를 지었습니다. 1944년에는 저 또한 징집되어 서울의 용산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운 좋게도 전쟁터인 뉴기니로 병력을 옮길 수송선이 모두 격침되어 전쟁터로 갈 수 없었고, 경성과 종로를 여유롭게 떠돌기도 했지요. 전라도 정읍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조선에 머물렀던 2년간의 경험도 제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에도 전후 사회의 범죄 증가와 당시 문단의 매너리즘도 제가 이전과는 다른 작품을 쓰는데 영향을 미쳤지요.

포와로 두 분 다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시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던 시대를 살아오셨군요. 대공황, 세계대전에서의 경험들이 두 분의 작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2 젊은 시절의 두 거장



포와로 두 분께서는 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셨고, 또 무척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두 분의 젊은 시절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농 제 아버지는 모자 제조공의 아들이셨고, 보험 회사에서 변변찮은 직책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3남매 중 막내이시고요. 열다섯 살 때 아버지가 중병으로 쓰러지셔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저런 잡일로 가게를 돌보았습니다.

마쓰모토 저의 아버님께서서는 행상, 과자 가게, 음식점 등 안 해 보신 일이 없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였습니다. 위로 누나가 둘 있었는데, 어려서 모두 죽었기 때문에 저는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소학교(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진학은 포기하고 지방 출장소의 급사로 취직했는데, 어린 저에게 이것은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많은 문학 작품을 읽기도 했지요.

포와로 두 분 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후, 열여섯 살에 심농 선생님은 기자라는 직업을 얻으셨지요?

심농 맞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기자라는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들었지만, 기사를 하면서 1천 편이 넘는 기사를 썼고, 무명 예술가나 작

가들과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익힌 글솜씨나 많은 경험들이 이후의 창작에 있어, 굉장한 밑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쓰모토 저도 지방 출장소가 불황으로 폐쇄되는 바람에 허름한 지방 신문사에 기자가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듣게 된 말은 <신문 기자는 모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다. 너같이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는 소리였습니다.

포와로 정말 큰 상처가 되셨겠군요.

마쓰모토 심농 씨와 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놈의 대학이니 학벌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값아먹고 가슴을 찢어 놓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게요.

심농 마쓰모토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쓰모토 씨의 생활고에 비하면 제가 프랑스와 유럽의 강과 운하를 마음껏 돌아다닌 것은 사치였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포와로 매그레 시리즈를 쓰기 몇 년 전인 20대 중반에는 <오스트로고트>를 타고 프랑스며 유럽을 탐험하고 다니셨지요. 또 배에서 집필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 외에도 강과 운하에서 경험하신 일들이 선생님의 작품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심농 그렇지요. 매그레 시리즈는 뱃사람들의 멜랑콜리한 세계를 어두운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타인의 목』이나 『제1호 수문』, 『라 프로비당 스토의 마부』 등등……. 생활인과 직업인으로서의 비애를 가진 평범한 사

람들의 고통과 비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쓰모토 제가 겪은 신문사 생활은 저의 작품 속에 깊이 투영되었습니다. 행정조직이나 재벌같은 거대조직의 음모를 파헤치는 개인이나 형사들이 나오는 작품들이 그러하겠지요. 그리고 어둡고 탁한 청춘의 경험, 시대의 암담한 분위기와 절망감이 제 작품 속에 그대로 묻어난다고 보아도 좋을 겁니다.

포와로 마쓰모토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는 당대의 청년들이 느끼는 연애나 사랑을 둘러싼 감정의 갈등과 고뇌를 전혀 살피볼 수 없고, 부당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인으로서의 삶이 느껴지는데요, 선생님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여자나, 연애 경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쓰모토 저도 스물여섯 살 무렵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인쇄공에 불과했고, 나는 내 수입으로 가정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겪을 수 없었던 설렘을 느꼈지만, 결국 그 감정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결혼을 해서 세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행복감보다는 아이들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부담감뿐이었지요…….

포와로 반면, 심농 선생님께서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농 저는 두 번 결혼했고, 두 번 다 아내의 하녀와 오랜 내연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 저는 1만 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쓰모토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80대 중반까지 장수했으니, 선생님은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닐까요.

심농 저는 스무살 때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마쓰모토 선생님과 직업이나 결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격차가 컸기 때문이겠지요. 마쓰모토 씨가 힘들고 어렵게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저는 한번에 손쉽게 얻었으니까요. 괜시리 죄송스럽군요.

3 작품세계



포와로 이번에는 두 분의 유명한 작품들 위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농 선생님의 매그레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심농 매그레라는 인물은 내가 우연히 카페에서 술 한 잔을 마시며 떠올린, 상당히 즉흥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를 처음 출판업자에게 보여줬을 때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죽고 싶을 정도로 상심하기도 했지만, 끝내 75편의 장편 소설이 쏟아져 나왔지요. 1931년에서 1972년까지, 매그레 시리즈만 40여 년을 썼습니다. 마쓰모토 씨의 작품 인생과 비슷한 시간이죠. 그 외에 일반 소설도 여러 편 썼는데, 매그레 시리즈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서, 후세인들은 저를 추리 작가로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은 화가 나요. 애거서 크리스티가 『커튼』에서 포와로를 죽였듯이, 저

도 매그레를 언젠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포와로 『커튼』이야기를 들으니 진땀이 흐르는군요. 다음에는 마쓰모토 선생님께 질문인데요, 선생님도 추리소설, 역사, 고고학, 순문학 등에 이르기까지 작품만 1천여 편이 훨씬 넘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요?

마쓰모토 아무래도 인기가 가장 많은 나의 작품인 『모래 그릇』, 『점과 선』, 『제로의 초점』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일본 사회에 돌풍을 일으킨 『일본의 검은 안개』도 물론 빼놓을 수 없겠지요.

포와로 두 분께서는 한 인간이 써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작품을 창작하셨습니다. 창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농 당연한 사실 하나를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창작을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소화된 것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 있는 날것에서 자양을 얻어야 합니다.

마쓰모토 노력과 끈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흔 살이 넘어서 데뷔를 한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집필과 창조에 모두 바치기로 결정했고, 결국에는 오른손이 마비되어 내 손이 되어 줄 비서를 채용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심농 타자기를 쓰셨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으셨을 텐데…….

포와로 마쓰모토 선생님은 추리소설보다는 오히려 처음에는 순문학을 지향하셨습니다. 특히 『어느 고쿠라 일기전』이 아쿠타가와 상을 받는 놀

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시들어 가는 중년의 선생님이 느끼셨을 감동과 충격이 어느정도 짐작이 갑니다.

마쓰모토 아쿠타가와 상을 받은 사실은 물론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품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아서 그 뒤 4년이 지나서야 『얼굴』이라는 작품집으로 탐정작가 클럽 상을 받고, 이후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모두 계산해보면 약 2천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심농 씨도 이에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포와로 심농 선생님도 처음에는 순문학을 지향하셨지만, 곧 대중문학으로 전향하게 되셨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대중문학을 지향하게 된 가장 큰 계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농 저는 문학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학을 해본 적도 없고요. 저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젊어서는 문학적인 내용을 없애 버리면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깊이나 탐구에 있어서는 세이초 씨에 한 수 아래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포와로 다음은 판매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판매량만큼은 심농 선생님이 완승인 것 같아요. 심농 선생님의 작품 판매 부수는 5억 권(!)에 달하고, 세이초 선생님은 60세 무렵 갓파노벨스에서 나온 저서 판매고가 1천만 부를 돌파하셨네요.

심농 그리 확실한 통계는 아닌 것 같지만, 팔리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포와로 다음은 한국에 번역된 작품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책들에서 매그레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찾아볼 수 있었던 심농 선생님의 작품은 <수수께끼 연작>과 『사나이의 목』, 『제1호 수문』과 『황색의 개』 정도에 불과하군요.

심농 지금까지 한국의 추리소설 번역과 소개가 얼마나 미국, 일본에 치우쳤었는지 알 수 있는 의미심장한 징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80년 만에 매그레 반장이 한국에 소개된다니,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우호와 문화 교류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포와로 다음은 마쓰모토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점과 선』, 『제로의 초점』, 『모래 그릇』 등은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 본인의 작품성과 명성에서 기획을 한 것이 아닌, 미야베 미유키의 브랜드 네임으로 출간된 걸작 단편 컬렉션 세 권이 있습니다. 아, 검은 화집이라는 분권 안 해도 좋은 단편집도 소개가 되었었지요. 아직도 한국에서 선생님의 작품은 정식으로 소개되지 않았고, 선생님은 여전히 대다수의 한국독자들에게, 미지의 인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또한 정식으로 물꼬를 터주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심농 매그레 시리즈가 한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쓰모토 씨의 작품도, 성공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4 작가와 영화



포와로 다음은 두 분의 작품이 영화화된 사례를 간략히 알아보기로 할까요.

심농 내 자랑 같지만, 아마도 내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작품이 영화화되었을 겁니다. 극장판으로만 60여편, 텔레비전 영화로는 총 3백 편 가량…….

포와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반면 마쓰모토 선생님의 『제로의 초점』은 「제로 포커스」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마쓰모토 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영화 중의 하나지요. 2009년에는 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쏟아져나왔지요.

포와로 생각해 보니, 재해석이나, 작품의 재창조에 있어서는, 마쓰모토 선생님이 훨씬 더 후세인들에 의해 활발한 작품활동이나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농 그래도 작품의 숫자로 보면 나를 따라올 수 없지요.

마쓰모토 심농 선생은 양, 나는 질로 승부한다는 말인가요.

포와로 장 르누아르 감독의 「교차로의 밤」이나, 매그레 시리즈 최고 걸작 영화로 꼽히는 「매그레, 텃을 놓다」도 꼭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심농 한국영상자료원에 한번 상영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떨겠소?

포와로 반면 마쓰모토 선생님의 작품은 드라마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두 시간 스페셜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고, 또 나카이 마사히로 주연의 「모래 그릇」은 명작이라 할 수 있지요. 노무라 요시타로 감독의 영화 「모래 그릇」도 일본 영화사의 명작으로 손꼽히지 않습니다.

마쓰모토 계속해서 내 작품들이 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뿌듯합니다. 그만큼 내 작품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5. 종결

포와로 긴 대답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심농 (!!!!!!!)

세이초 이게 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포와로 크루아상과 카망베르 치즈입니다. 심농 선생님이 힘들었던 시절에 이것들만으로 연명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 이 빵이 심농 선생님께 어떤 추억으로 남아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서……

심농 나의 창작 의지를 복돋아 주었던 눈물 젖은 빵이 아닐까요.

세이초 눈물 젖은 빵에서 힘을 얻으셨다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포와로 또, 보르도산 와인과 세이초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장어구이도 넉넉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심농 한잔하세요. 마쓰모토 씨.

세이초 둘도 없는 좋은 친구를 만나, 정답게 한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epilogue

월간 매그레
7월호에 부쳐

영주

한 손엔 매그레, 얼굴엔 빙그레. 조르주 심농을 만나게 해준 열린 책들에 감사를 표하며.

하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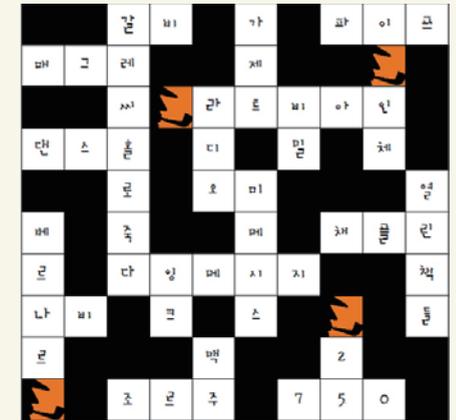
심농이 전집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75권 완간의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 보련다.

Poirot

매그레 시리즈를 읽으며, 매그레라는 이 양반에게 80년이라는 시간과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공간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놀라운 마력이 있음을 실감했다. 앞으로 한국에서 매그레 시리즈는 어떻게 변모하고 성장해 나갈 것인가? 완간의 그날을 기대하며!

파자마
마니아

지금 나는 수치스러운 짝사랑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노처녀의 긴긴밤을 달래 주는 남자는 바로, 조르주 심농의 히어로 매그레 반장! 이 거구의 남자에게 완전 홀릭!



<p.52 퍼즐 정답>

과지모도

쉽지는 않았지만 재밌던 한 달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좋은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그레 전집의 순조로운 완간에 다들 동참해 주세요!

뚜루

기네스를 왼쪽에 심농을 오른쪽에 끼고 나는 지금 달리기 시작했다. 75권을 향해!

오픈키드

매그레는 맥주를 좋아한다지만 내게는 그야말로 소줏잔을 함께 기울이고픈 아저씨다. 오래도록 함께 취하고 다독여 주고 싶은 사람이다.